

종합·해설

# 민주 '총선공천안' 갈등 격화

## 국민경선 당원 참여 비율·지역위원장 사퇴시기 이전 커 개혁특위안 정치 신인들 환영 속 최고위 논의 관심 집중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개혁특위가 마련한 공직 및 당직선거 개혁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이 도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내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 등을 놓고 원외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의 당원 참여 비율과 경선에 앞서 이뤄지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기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 국민참여경선제를 다수안으로, '당원 50%+국민 50%'의 국민참여 경선

제를 소수안으로 참여하는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은 당원이 참여하지 않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정당 정치 근간을 흔들고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원을 중심으로 지역구를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완전국민참여경선제가 그동안 공들여온 정치적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도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개혁특위는 공

한 경선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하도록 했지만 1차 공천선정 전에 사퇴하도록 하자는 소수안도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은 총선 120일 전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온갖 국을 도맡았는데 선거 4개월 전 물러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 신인들은 개혁특위의 제시안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선 완전국민참여경선제 도입에 대해 당원이 아닌 국민이 국회의원을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또한, 지역위원장에 기득권을 주

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총선 4개월 전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적절할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특위가 제시한 공천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논의와 함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원외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개혁특위의 공천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성명은 물론 중앙위원회 소집 등 실행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안은 당내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특히, 경선 방식과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 등은 총선 후보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사를 찾아 농성하고 있는 예금피해자들을 만났다. 우제창 의원(저축은행 특위 민주당 간사)이 예금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재원 마련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남뉴스

## 저축銀 국조 특위 내일 목포 방문

### 부산 이어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서 검증작업... 증인채택엔 이견 팽팽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이틀째 목포를 시작으로 조사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기관들의 협조가 미흡하고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효율적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조특위는 25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산 본점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지방 국제경찰서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한다. 부산지방경찰청 문서검증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제청 보청과 주고 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에서 검증 작업을 계속할

다. 28일에는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감독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29일에는 대검찰청을 찾아 저축은행 수사에 미흡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조사가 요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관이 문서검증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미지수인데다 현재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를 가늠할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부실 국조'를 예상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위는 지난 21일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이영수 KMDC 회장 등 일부 증

인 채택에는 의견집근을 이뤘지만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박지민씨 부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조의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일정 연장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두언 특위위원장은 24일 "현장 방문, 문서검증 등 기본 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여야 간 사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이번주에는 증인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민생복지' 시동

### 특위 첫 회의... '3+3정책' 구체화 작업

민주당은 지난 22일 '보편적 복지'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민생복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특위는 전담 경제정의와 공정한 시장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경제민주화특위와 함께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민생진보를 실현할 양대 축으로 평가된다.

"3+1(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정책을 마련한 보편적 복지 기획단을 확대 개편한 것이기도 하다.

특위는 의원 15명, 원외 인사 16명 등 당내 특위 중 가장 많은 31명으로 꾸려졌다. 특위 신정자가 물러선 별한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특위의 가장 큰 임무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구상을 담은 '3+3(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 복지)'

정책의 시행 방안과 재원 규모, 조달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민주당은 특위 논의를 토대로 8월 초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특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완연했다.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특위를 통해 민주당이 단지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경제운용을, 국가운영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특위는 민주당의 구상을 잡는 게 아니라 한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가 그저 꿈이나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국정운영의 논리가 되게 방향을 정립하고 논리를 정립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재벌개혁, 공감하지만... 여야, 각론엔 시각차

### 국회의원들 토론회

한나라당 김성식,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주 의원은 "대기업이 물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골목상권까지 잠식해 국민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기업이 국민경제와 선순환하며 성장하는 요인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경제를 파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재벌을 건드리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데 이 시스템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표적 재벌 기업 삼성·현대·SK·두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한다. 재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당간(대·중소기업) 거래관계가 갑을 관계로 바뀌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이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면서도 "색깔이 칠해진 이념이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속에서 국민이 팔고루 잘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김 의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말의 선한으로 끝나는 이유는 여당이 직권 상정으로 재벌개혁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법은 그렇게 만들고 말로 제도를 고치겠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화살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경제 민주주의가 안 되면 정치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도 위협받게 되고,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며 "지속적 성장과 경제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민주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친박 이규택 "정두언 호남 출마해라"

### 정의원, 박근혜 대구 출마 비판 관련 반박

친박 이규택 미래연합 대표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선언을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서울 출마와 비교해 비판한 데 대해 "정 의원이 (지역인) 서대문을 떠나서 자기 고향(광주)으로 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신심감을 주고 오히려 더 국민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내가

보기에는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도 도권에 온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그만큼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라고 일축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그분의 최근에 박근혜 대표에 대한 발언은 아주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분으로서 자기 내부에 있는 유력한 후보자 한 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 의원을 비판

했다.

그는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 속에서 두 번이나 실패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때문에 대세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최근 이동관 대통령인턴특별보가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폭언과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등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엄청난 변화가 오면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이나 한나라당의 내부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나 놓고 너지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고급	9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초급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고급	9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8월 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8월 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 연설 · 리더십 · 설득력 향상

###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1 교육기간: 2011년 9월 9일(금)~2012년 6월말일까지 : 1년과정
-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 2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함조직
- 3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중보자, 남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 4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훈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 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 5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까지 실습 위주 지도
-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등록시간: (월) ~ (금) 10:00~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심관 4층)
- 7 등록방법 (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 8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

###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에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안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리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할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안벽한시공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대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갈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